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은 지금까지 공연 관람 및 체험·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48만명에 이르는 등 국악 문화 신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쉼과 힐링의 국악... 이곳에서 풍류를 찾는다

### 국립남도국악원 10주년

처음 남도 땅 외진 곳 진도에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윤이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 4만명의 작은 마을에 터를 잡게 되면 수백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공간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개관 10년이 지난 지금 걱정을 딛고 남도국악원은 국악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남도국악원이 문을 연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다. 남도국악원은 서울(1951년), 남원(1992년)에 이어 지난 2004년 7월 문을 열었다. 부산국립국악원은 2008년 개관했다.

남도국악원까지 찾아가는 길은 멀다. 진도읍을 지나서도 20km를 더 달려야 한다. 국악원 한 곳을 찾아가자고 광주에서 2시간 남는 나들이를 하는 건 쉽게 엄두내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진도가 어떤 고장인가. 남종화의 산실 윤림산방, 찻집곳, 세방낙조, 신비의 바닷길 등 남도문화의 원형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수려한 경관까지 일품인 고장이다. 남도국악원에 도착하면 참 멋진 곳에 자리했다

남도 문화·수려한 경관 '진도'에 위치 공연·체험장에 숙박시설은 전국 유일 '국악산수화' 대표공연.. 가족프로그램 인기 체계적 관리·운영 전문강사 부족 문제로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뒤로는 여귀산이 자리하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제주도 한라산과 추자도까지 보인다.

총 11만 3251㎡(3만4200평) 규모의 국악원은 공연장, 체험장, 숙박시설로 구성돼 있다. 특히 144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은 전국 4개 국악원 중 유일한 곳으로 장기간 머물며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개관 첫째 2만 4500여명이 다녀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악원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48만명에 달

한다. 1024회 공연에 44만 4000명이 다녀갔고 684회의 연수·체험에 3만 4777명이 참여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진악당(586석)에서 열리는 금요일상설 공연 '국악 산수화'다. 또 남도국악원이 지역 문화 자산을 모티브로 제작한 브랜드작품 '굿극 찻집', '술래야, 술래야', '백구가 부르는 진도 아리랑'과 여름음악축제 '흥 더하기 신명' 등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굿음악페스티벌은 공연과 세미나가 어우러지는 행사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굿 관련 예술인들을 직접 초빙, 굿을 재현한다. 지금까지 '해원의 굿 삶과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국악 체험·연수 프로그램은 남도국악원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금~토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가족주말프로그램은 국악 공연 관람, 강강술래, 국악 배우기, 윤림산방 등 남도 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숙박료, 프로그램 참가비, 3개 식사를 포함한 비용이 5만7000원(2인)~17만8000원(8인)으로 저렴한데 2~3개월씩 예약이 밀려 있다.

기업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악으로 풍류찾기', '문화행정 교육과정'·'국악교육지도자 양성 과정' 등도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8년째 진행중

인 해외동포국악연수 프로그램은 심혈을 기울이는 기획이다. 지금까지 미국, 사할린 등 각국 동포들이 다녀갔다.

국악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작업도 국악원의 중요 역할이다. 지금까지 '진도 단골 체재로 구술채록 연구-체재의 삶과 예술'·'생계사 음악 기행 총서' 15권의 총서, 13종의 음반, 6종의 영상물을 발간했다.

남도국악원은 10년간의 운영을 통해 연수와 체험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 지역에는 없는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과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진행할 전문강사가 부족한 게 걸림돌이다. 현재 남도국악원의 인원은 101명으로 남원(137명), 부산(147명)에 비해 가장 적다. 또 현재 체험, 연수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예술단원 역시 준단원 포함 55명으로 남원(85명), 부산(104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잠점을 갖고 있는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단원 등 전문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살아 숨쉬다

조성숙 전, 28일까지 장성 갤러리 트락

장성공공도서관 갤러리 트락은 오는 28일까지 서양화가 조성숙씨를 초대해 '생명을 사유하다'전을 연다.

조씨는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생명사상을 부드러운 파스텔톤과 시적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생명-동지'라는 주제에 천착해온 조씨의 작품들은 '존재와 생명에 대한 미적 탐구'의 결과물이다.

전시 작품들은 생명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사유의 메타포로 동지, 알, 섬, 새, 꽃 등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작품 속 동지는 따뜻함과 모성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종의 영혼의 휴식처인 셈이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인 복수초와 처마 끝에 달린 풍령의 만남을 그린 '꽃의 반아-복수초'는 반야(般若)의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지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겠다는 의미다. 문의 061-399-16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9일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시립박물관·민속박물관회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김해룡)과 (사)광주민속박물관회(회장 김승환)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14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기원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 나눔마당 등 4개 마당으로 구성됐다. 기원마당은 길놀이, 당산제, 마당밭이, 판굿 등이 펼친다. 또 액막이 연을 하늘로 띄워보내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놀이마당은 민속놀이 경연으로 꾸며진다. 공연마당에서는 황승욱 가야금예술단의 남도민요와 가

금 병창 공연과 다문화가족 대상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열린다.

나눔마당에서는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고, 추억의 달고나·빵튀기·국화빵 등이 저렴하게 제공된다. 또 떡메치기, 가훈 써주기 등 참여프로그램과 전통자수작품 전시 및 시연 등이 펼쳐진다.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까지 입장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문의 062-613-536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8일 전통문화관 2주년·국립공원 무등산 1주년 특별공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이 개관 2주년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1주년을 축하하는 특별공연을 마련했다.

오는 8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리는 첫 무대는 박승희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전남도립국악단의 '가무와 한마당'.

기악독주곡인 산조에 여러 국악기가 어우러진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살풀이', '한량무'가 이어지고 창극 흥보가 중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연주로 마무리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개관 기념일인 9일 오후 3시에는 특별기획창극 '심봉사 눈을 뺏다'를 무대에 올린다.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심청가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재구성한 창극이다. 13일 오후 3시에는 무등산국립공원 승격 1주년에 따른 전통문화관 발전방안을 토론회하는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12년 2월 9일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발전 공간으로 개관한 전통문화관은 지난해 9만4000여 명이 다녀갔다. 문의 062-232-1501~2.

###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o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